

임계동정

國際電機(株), 주상설치형 자동전압조정기 EM마크 인증취득

國際電機(株)(代表: 金俊哲)가 주상설치형 자동전압조정기(POLE MOUNTED AUTOMATIC VOLTAGE REGULATOR)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국립기술품질원으로부터 EM 품질인증을 취득했다.

이는 변압기 제조업체로서 최초로 취득하여 국내업계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제전기(주)는 국내 변압기 메이커로 발족한 이후 업계를 선도해 오고 있으며, 이번 주상설치형 자동전압조정기(PVR)가 EM 품질인증을 취득함에 따라 21세기 품질경영 시대에 대비한 다양한 품질혁신 활동을 펼쳐 보다 완벽한 전사적 품질시스템을 활성화하고 품질의 고유화와 일등화를 창출하여 국내외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이번 국립기술품질원으로부터 EM 품질인

증을 취득한 주상설치형 자동전압조정기(PVR)는 주위온도 섭씨 40℃이하, 표고 1000m이하의 장소에서 22.900V 배전선로의 전압변동을 각상별로 자동조정하므로 항상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게 되므로 전력의 지선별 및 집단부하 단위별로 주상설치형 자동전압조정기(PVR)를 설치하면 적은 비용으로 절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품으로 미국의 전문회사인 CPS(COOPER POWER SYSTEMS)사와 1995. 7월에 기술도입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하여 국산화한 제품으로 한국전력공사 및 POSEC에 다량 납품하여 운전중에 있으며 금번 EM 품질인증 취득을 계기로 한층 진보된 지상형 GVR(가칭)를 개발하여 보다 양질의 전원을 공급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利川電機(株), 회사 상호명과 CI를 변경

利川電機(株)(代表: 柳熙東)가 9월 2일(火)부로 회사 상호명과 CI를 변경했다.

이번에 이루어진 변경배경은 삼성그룹의 일원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와 고객만

족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이미지 제고 차원으로 이루어진 조치로 이천전기의 또다른 의지 표현으로 주목되고 있다.

이천전기는 1938년 설립된 이후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펌프, 수배전제어반, 수처리·환경시스템등을 생산하는 국내 최초의 중전기 업체이다.

이천전기는 금년을 정상탈환을 위한 재도약의 시기로 하여 2005년 국내 최고 수준의

중전업체를 목표로 힘찬 발걸음을 내 디디고 있는 중이다.

❖ 상호명

이천전기공업주식회사 ⇒ **이천전기주식회사**



現代重工業(株), 고효율 기자재 인증획득

現代重工業(株)가 모터업계 최초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을 획득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7월에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전압 600V이하의 일반용 3상 유도전동기에 대해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을 취득,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융자지원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고효율 전동기 보급 확대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에 현대중공업이 국내 모터업계 최초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을 획득, 동종업계의 고효율 전동기 개발과 보급확대를 가속화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일반 산업현장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일반전동기 보다 효율이 2~10% 이상 높은 고효율 유도전동기의 보급확대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우리나라의 산업현장의 에너지절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에너지관리공단은 정부의 산업계 고효율화 정책에 발맞추어 고효율 에너지기자재가 우선 보급될 수 있도록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제도시행에 관한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대민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안내등 지원제도를 마련해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喜星電線(株), 광섬유 사업 진출

喜星電線(株)(代表: 裴恩出)가 光케이블 생산에 이어 광섬유도 자체생산, 이 부문 사업을 강화한다.

희성그룹은 올해부터 본격생산에 나선 광케이블의 소재인 광섬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희성전선 전주공장에 1백억원을 투자, 내년까지 광섬유 제조설비를 제작, 설치키로 했다.

희성전선은 이를 위해 전주공장 여유부지 3천여평에 공장등을 세우는 한편 투자비용

절감을 위해 그동안 축적해 온 자체기술을 이용, 이달부터 본격적인 설비제조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동사는 그동안 일본과 LG전선 등으로부터 광섬유를 수입 또는 납품받아 왔으나 앞으로 자체 광섬유를 제조함으로써 원활한 소재공급과 품질확보를 통해 광케이블사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희성전선은 연간 3백억원 규모의 광케이블을 주로 한국통신 등에 공급해 왔다.

LG電線(株), 무독성 난연 配電 케이블 개발

LG電線(株)(代表: 權攸久)는 최근 지하매설용 전력케이블로는 처음으로 불에 잘 타지 않고 유해 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무독성 난연 지중 전력케이블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LG전선의 무독성 난연 지중 전력케이블은 우리나라 기간 配電망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가교폴리에틸렌(XLPE) 절연 22.9kV급으로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터널식 전력구나 화재로 인한 대규모의 피해가 예상되는 플랜트, 정유공장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LG전선이 지난 '96년부터 1년 6개월에

걸쳐 개발에 성공한 무독성 난연 전력케이블은 폴리올레핀계 난연재료를 사용해 유해 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아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고 연기와 냄새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LG전선은 무독성 난연 전력케이블이 한국전기연구소(KERI)의 전기특성 및 안정성 시험은 이미 완료했고 현재 난연케이블 부문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품질 규정을 적용해 검토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KEPCO)에 빠르면 이 달(9월)말부터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